

外国文学选读系列教材

韩国 文学 选读

◎ 韩梅 韩晓 编著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Press

外国文学选读系列教材

韩国文学选读

韩 梅 韩 晓 编著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韩国文学选读/韩梅, 韩晓编著. —北京: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2009
(外国文学选读系列教材)
ISBN 978-7-81134-340-3

I. 韩… II. ①韩…②韩… III. ①朝鲜语—阅读教学—高等学校—教材②文学—作品—简介—韩国 IV.
H559.4: I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25337 号

© 2009 年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出版发行

版权所有 翻印必究

韩国文学选读

韩 梅 韩 晓 编著

责任编辑: 梅 子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北京市朝阳区惠新东街 10 号 邮政编码: 100029

邮购电话: 010-64492338 发行部电话: 010-64492342

网址: <http://www.uibep.com> E-mail: uibep@126.com

北京市山华苑印刷有限责任公司印装 新华书店北京发行所发行

成品尺寸: 148mm × 210mm 7 印张 194 千字

2009 年 4 月北京第 1 版 2009 年 4 月第 1 次印刷

ISBN 978-7-81134-340-3

印数: 0 001 - 3 000 册 定价: 19.00 元

出版说明

为满足全国高等院校外语专业本科学生学习的需要，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联合全国重点院校的骨干教师特编写本套“外国文学选读系列教材”。

本套教材包括英、法、德、韩、日、西班牙、意大利、阿拉伯八个国家的文学作品，所选作品都是各国文学中的名篇佳作，作家与作品大体按出生年月、发表时间的先后编排。结构安排为：a. 背景知识 b. 作者简介 (c. 作品题解) d. 选文 e. 注释 f. 习题。题解力求简明，注释力求准确详尽，减少读者在理解上的困难。

本套教材主要面向本科层次的学生，适合高等院校各类语言专业用作教材，可与“文学史”配合使用，也可单独使用。对于相关专业的教师、进入本科阶段的自学者以及文学爱好者，本套教材都不失为是一套优秀的参考读物。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2008 年 6 月

목 록

제 1 과 한시:.....	1
<秋夜雨中(추야우중)>,<題伽倻山讀書堂(제가야산독서당)>, <送人(송인)>,<佛日庵因雲(불일암인운)>,<夢魂(몽혼)>, <哭子(곡자)>	
제 2 과 시조:.....	10
<한 손에 가시를 들고>,<이화에 월백하고>,<이몸이 죽어죽어>, <홍망이 유수하니>,<태산이 높다하되>,<동짓달 기나긴 밤을>,<나뉘야 청산가자>,<청산은 절로절로>	
제 3 과 가사(1): <상춘곡>,<규원가>.....	21
제 4 과 가사(2): <사미인곡>,<속미인곡>.....	33
제 5 과 고전소설: <홍길동전> 발췌.....	48
제 6 과 고전수필: <규중칠우쟁론기>.....	62
제 7 과 판소리: <흥부전> 발췌.....	72
제 8 과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발췌.....	83
제 9 과 현대시(1):	95
<진달래꽃>,<산유화>,<초혼>,<님의 침묵>,<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 10 과 현대소설(1): <물레방아>.....	106
제 11 과 현대시(2): <서시>,<화사>,<국화 옆에서>.....	127
제 12 과 현대소설(2): <봄, 봄>.....	134

제 13 과	현대소설(3): <메밀꽃 필 무렵>.....	152
제 14 과	현대소설(4): <역마>.....	167
제 15 과	현대소설(5): <학>.....	194
제 16 과	현대소설(6): <사수>.....	202

제 1 과 한 시

[배경 지식]

한문학이란 한자를 가지고 중국 고전 문학의 형식적인 특징에 따라 창작된 문학작품을 말한다. 한자는 기원전 2세기경 한반도에 전입되어 15세기 중엽 한글 창제 이전까지 유일한 문자로 널리 사용되었다. 한문학은 한자의 사용에 따라 형성되었지만 신라시기 수많은 한국인이 중국의 당나라에 유학을 온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당나라에 오래 머물면서 자유자재로 한문을 구사하는 능력을 키운 이후 귀국하여 한문학 창작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한국 한문학을 본격적으로 형성하였다.

한문학은 주로 한국의 문인 사대부들이 진지한 사고를 표현하는 고급문학으로 20세기 초까지 한국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표현수법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중국 문학에 대한 모방이 없지 않지만 한국의 사회현실 및 민족적인 정서, 사고방식 등을 반영하고 있어 한국 학계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다.

한국 한문학의 갈래는 크게 한시, 한문소설, 고문(산문), 변려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서에서는 주로 한시 중에서 신라 시기 작품 2수, 고려 시기 2수, 조선 시기 3수를 선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현실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고독감이나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한 삶의 모습, 이별의 슬픔을 읊조리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애절한 심정을 표출하는 작품들도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수없이 창작된 한국 한시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작가 소개]

<秋夜雨中(추야우중)>과 <題伽倻山讀書堂(제가야산독서당)>의 작가 최치원(崔致遠 857~?)은 신라 말기의 문장가, 학자이다.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고운(孤雲) 혹은 해운(海雲)이다. 869년(경문왕9년) 당나라에 유학 왔고 874년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냈다. 879년 황소의 난에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비롯한 많은 서장(書狀)을 제출함으로써 중국에서 문명을 떨쳤다. 885년에 귀국하였으나 문란한 국정에 실망하고 관직을 그만둔 후 각지를 유랑하다가 가야산 해인사에서 여생을 마쳤다. 최치원은 시, 문 등 수많은 뛰어난 한문학 작품을 창작하여 한국의 문종으로 추앙받는다.

<送人(송인)>의 작가 정지상(鄭知常, ?~1135)은 고려시기의 문인으로 묘청의 난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피살되었다. 절구 등 단형시를 짓는 데 당대의 최고시인으로 인정받았다. 시풍은 매우 청아하며 호일하였다. 문집으로 <정사간집>이 전해 온다.

<佛日庵因雲(불일암인운)>의 작가 이달(李達, ?~?)은 조선 중기의 시인으로 문장과 시에 능하고 만당의 시풍을 잘 배웠다고 하여 삼당 시인 중의 하나로 유명하였다. 문집에 <손곡집>이 있다.

<夢魂(몽혼)>의 작가 이옥봉(李玉峰, ?~?)은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이다. 옥천(沃川) 군수를 지낸 이봉(李逢)의 서녀(庶女)로 조원(趙瑗)의 소실(小室)이 되었지만 나중에 버림을 받았다. 조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으나 끝내 단념하고 바다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시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옥봉집(玉峰集)》 1 권을 남겼다.

<哭子(곡자)>의 작가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은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으로, 본명은 초희(楚姬)이며,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 허엽과 오빠 허성, 허봉 그리고 동생 허균과 함께 시문을 잘하여 5 문장가라고 불렸다. 결혼생활이 불행했던 시인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섬세한 필치와 여성의 독특한 정서로 노래하여 낭만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유선시를 비롯한 애상적 시풍의 특유한 시세계를 이룩하였다. 한국 고대 대표적인 여류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

[작품 해제]

<秋夜雨中(추야우중)>: 이 작품은 오언 절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한시이다. 바람이 불고 비내리는 쓸쓸한 가을 밤, 자기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는 화자는 외로운 가슴을 안고 늦도록 잠이 들지 못해 등잔을 마주했으나 마음은 만리 밖을 떠돈다. 소박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는 시간과 공간, 청각과 시각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바깥 세상과 그 세상과 단절된 시적 화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부각시켜 시인의 고독감을 절실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최치원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꼽히며, 세간에 널리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다.

<題伽倻山讀書堂(제가야산독서당)>: 최치원이 귀국 후 정치에 실망하고 가야산으로 들어가서 풍류 생활을 보내던 중에 산수의 풍경을 보고 읊은 시이다. 세속을 멀리하고 남은 인생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인의 심정이 '물소리'와 '시비성'의 대비에 의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시인의 불만, 실망, 자연을 통해 현실적인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이 간결한 형식 속에 함축적으로 잘 형상화되고 있다.

<送人(송인)>: 이 작품은 대동강에서 친한 벗과 이별하는 슬픔을 노래한 작품으로 한국 한시 중 송별시의 대표작이다. 제3, 4구의 '대동강물이 이별의 눈물로 마를 날이 없다'고 한

부분에서 눈물과 강물을 연결하는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정서를 보편적인 이별의 슬픔으로 일반화시켜서 독자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천고의 절창으로 칭송되었다.

<佛日庵因雲(불일암인운)>: 자연 속에서 시간을 초월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손님이 와서 문을 열어 보고야 비로소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된다는 표현은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살아가는 탈속의 경지를 잘 보여준다.

<夢魂(몽혼)>: 애정시의 최고봉을 차지하는 작품 중의 하나로 사무치는 연모의 정을 그려내고 있다. 제 3 구에서 '꿈 속의 발자취가 현실로 옮겨진다면 돌길이 반쯤 모래가 되었으리라' 하는 발상이 참신할 뿐더러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애타는 심정을 완곡하고도 감동적으로 표출하였다.

<哭子(곡자)>: 불과 2 년 사이에 어린 딸과 아들을 연이어 잃어버린 시인의 피눈물나는 슬픔이 곡진하게 배어 있는 작품이다. 어머니로서 시인은 두 어린 아이의 혼백만이라도 꼭 붙여다니며 즐겁게 놀기를 바란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뽐진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품 원문]

<1>秋夜雨中(추야우중)

[원문] [한국어 발음]

秋風惟苦吟(추풍유고음)

舉世少知音(거세소지음)

窓外三更雨(창외삼경우)

燈前萬里心(등전만리심)

[현대어 역]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나니
 세상에 나를 알 이 적구나.
 창 밖엔 쓸쓸히 밤비 내리는데
 등 앞의 외로운 마음 만리를 달리네.

[단어 해석]

유 (惟): 오로지, 다만.

거세 (舉世): 온 세상.

지음(知音):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을 아는 벗.

삼경 (三更): 셋째의 경, 곧 자정 전후.

<2> 題伽倻山讀書堂(제가야산독서당)

[원문] [한국어발음]

狂奔疊石吼重巒 (광분첩석후중난)

人語難分咫尺間 (인어난분지척간)

常恐是非聲到耳 (상공시비성도이)

故教流水盡籠山 (고교류수진룡산)

[현대어 역]

첩첩한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의 봉우리에 올리니,
 사람의 말소리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봐
 짐짓 흐르는 물을 시켜 온 산을 둘러 버렸다네.

[단어 해석]

狂奔(광분): 미친 듯이 달림.

疊石(첩석): 겹쳐진 바위.

重巒(중난): 겹겹이 들어선 산봉우리.

咫尺(지척): 여덟 치와 한 자. 곧 가까운 거리.

故教(고교): 일부러 하게 함.

籠山(룡산): 산을 둘러쌈.

<3>送人(송인)

[원문] [한국어발음]

雨歇長堤草色多(우혈장제초색다)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別淚年年添綠波(별루년년침록파)

[현대어 역]

비 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르네,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단어 해석]

南浦(남포): 지명, 평양 남쪽 대동강 하류에 있는 나루터.

別淚(별루): 이별의 눈물.

<4>佛日庵因雲(불일암인운)

[원문] [한국어발음]

寺在白雲中(사재백운중)

白雲僧不掃(백운승불소)

客來門始開(객래문시개)

萬壑松花老(만학송화로)

[현대어 역]

절집이라 구름에 묻혀 살기로,
구름이라 스님은 쓸지를 알아.
바깥 손 와서야 문 열어 보니,
온 산의 송화꽃 하마 쇠었네.

[단어 해석]

[萬壑](만학): 겹겹이 겹쳐진 많은 골짜기.

松花(송화): 소나무의 꽃.

<5>夢魂(몽혼)

[원문] [한국어발음]

近來安否問如何(근래안부문여하)
月到紗窓妾恨多(월도사창첩한다)
若使夢魂行有跡(약사몽혼행유적)
門前石路半成沙(문전석로반성사)

[현대어 역]

요사이 어찌 지내시는지 안부 여쭙읍니다.

달 비친 사창에 저의 한이 많네요.

꿈속의 넋이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면,

그대의 문앞, 돌길의 반이 모래로 되었을 거예요.

[단어 해석]

安否(안부):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소식. 또는 인사로 그것을 전하거나 묻는 일.

妾(첩): 결혼한 여자가 윗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6>哭子(곡자)

[원문] [한국어발음]

去年喪愛女(거년상애녀)

今年喪愛子(금년상애자)

哀哀廣陵土(애애광릉토)

雙墳相對起(쌍분상대기)

蕭蕭白楊風(소소백양풍)

鬼火明松楸(귀화명송추)

紙錢招汝魂(지전초여혼)

玄酒存汝丘(현주존여구)

應知弟兄魂(응지제형혼)

夜夜相追遊(야야상추유)

縱有腹中孩(종유복중해)

安可冀長成(안가기장성)

浪吟黃臺詞(낭음황대사)

血泣悲吞聲(혈읍비탄성)

[현대어 역]

지난 해 귀여운 딸애 여의고
올해에는 사랑스러운 아들 잃다니,

슬프고 슬픈 광릉의 땅이여
두 무덤이 마주보고 있구나.

백양나무에는 으스스 바람이 일어나고
도끼비불은 숲 속에서 번쩍인다.

지전으로 너희들 넋을 부르며

너희들 무덤에 술잔을 따르네.
 아무렴 알고 말고 너희들 녀이야
 밤마다 서로서로 어울려 놀으려.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 한들
 이 또한 잘 자라길 바라리오?
 부질없이 황대사 읊조리면서
 애끓는 피눈물에 목이 메인다.

[단어 해석]

廣陵(광릉): 지명, 오늘날 경기도 포천군 소흘 읍과 남양주시 진접면 일대, 허난설헌의 죽은 두 아이의 무덤이 있는 지역.

松楸(송추): 나무, 산소 둘레에 심는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주로 소나무와 가래나무.

玄酒(현주): 제사 때 술 대신 쓰는 맑은 물.

黃臺詞(황대사): 당나라 측천무후가 큰 아들을 독살하자 둘째 아들인 태자 이현이 자신도 죽게 될까봐 두려워 황대사를 지어서 무측천을 감동케 하였으나, 그도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는 전고가 있음. 여기서 이 고사를 빌어 자식 둘을 모두 잃은 어머니의 처절한 심정을 나타냄.

[연습 문제]

1. <추야우중>에 나타난 시인의 현실의식이 어떠한가?
2. <불일암인운>에서의 '松花老'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 <곡자>가 왜 감동을 주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제 2 과 시 조

[배경 지식]

시조는 고려 말기에 형성된 한국어 시가 장르이다. 고려 말기 우탁(禹倬), 이조년(李兆年), 정몽주(鄭夢周) 등의 여러 작품이 초기의 작품으로 전해왔고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날로 계승·발전되어 수많은 시인을 배출하였다. 조선 중기에는 황진이(黃眞伊)를 배출하여 시조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산문의 영향을 받아 장형화된 사설시조가 나타났다.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은 초장(初章)·중장(中章)·종장(終章)의 3 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초·중·종장은 각 4 음보, 15 음절 내외로 구성되며 한 수의 음절수는 45 개 내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장 제 1 음보가 3 음절을 어기지 않는 것이 정격이며, 중장 제 2 음보는 5 음절을 확보할 때 시조의 율격이 살아난다.

시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별애상(離別哀傷), 강호한정(江湖閑情), 전가한거(田家閑居), 안빈낙도(安貧樂道), 연주충군(戀主忠君), 단심충절(丹心忠節) 등으로 다양하다.

시조는 한국문학사에서 창작시간이 가장 길고 향유층이 가장 넓은 문학 장르 중의 하나로 그 속에 담긴 사상과 정서는 한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작가 소개]

<한 손에 가시를 들고>: 우탁(禹倬, 1263~1342), 고려 말

정주학 수용 초기의 유학자. 왕에게 극간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는 예안에 은거하면서 후진 교육에 전념하였다. 당시 원나라를 통해 새로운 유학인 정주이학을 깊이 연구해 후학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화에 월백하고>: 이조년(李兆年, 1269~1343), 고려시대의 문신. 젊은 나이에 출사하고 왕의 음탕함을 간했으나 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듬해 사직하였다. 시문에 뛰어났으며, 시조 1수가 전해진다.

<이몸이 죽어죽어>: 정몽주(鄭夢周, 1337~1392), 고려 말기의 충신, 학자. 의창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고 유학을 보급하였으며, 성리학에 밝았다. 《주자가례》를 따라 개성에 5부 학당과 지방에 향교를 세워 교육진흥을 꾀했다. 시문에도 뛰어나 시조 <단심가> 외에 많은 한시가 전해지며 서화에도 뛰어났다. 이성계를 거부, 끝까지 고려를 받들다가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 피살되었다. 주요저서로는 《포은집》이 있다.

<홍망이 유수하니>: 원천석(元天錫, 1330~?), 고려 말 조선 초의 은사. 어릴 때부터 재명(才名)이 있었다. 출사하였으나 고려 말의 문란한 정치를 보고 개탄하면서 물러난 뒤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일찍이 조선 태종이 그를 불렀으나 그는 고려에 대한 충의심 때문에 끝내 출사하지 않았다. 그가 남긴 몇 편의 시문과 시조에 옛왕조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표현되어 있다. 《운곡시사(耘谷詩史)》라는 문집이 전해온다.

<태산이 높다하되>: 양사언(楊士彦, 1517~1584), 조선 전기의 문인. 시(詩)와 글씨에 모두 능하고, 특히 초서와 큰 글자를 잘 써서 조선 전기의 4대 서예가로 불렸다. 그는 이별과 상사의 서정적인 시와 낭만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시품의 작품들을 썼으며, 이는 16세기 문단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품집에 《봉래시집(蓬萊詩集)》이 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黃眞伊, ?~?),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 겸 명기. 시·서·음률에 뛰어났으며, 출중한 용모로 더욱